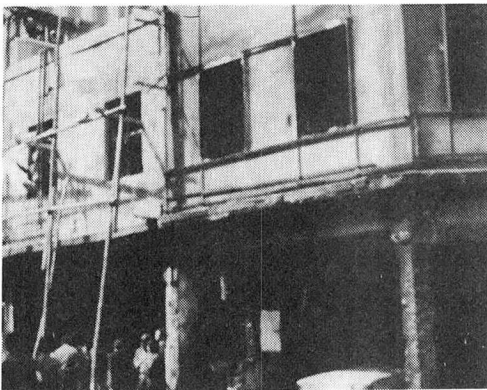




취재 : 정 유 권 <홍보부>

# 火災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지난 3월 부주의와 방심에서 비롯된 남대문 시장 화재를 두고 일부에서는 날벼락을 맞았다고 한다. 소형부탄 가스통 8천여개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인근의 상가에 인화되어 순식간에 상가전체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남대문 시장내 고려상가. 악몽과도 같은 그 순간을 잘 극복하고 한창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는 현장을 찾았다.



## ●상가개요

서울시 중구 남창동 52-1에 위치한 고려상가(소유주: 구성물산(주) 대표이사 黃龜斐)는 1955년 1월에 건축된 3층건물(연 6백32평)로 이태당시 지하층은 식당, 1층은 의류전문취급상가, 2층은 잡화를 주로 취급하는 고려상가등 2백29개 점포가 임대영업중에 있었다.

이 건물은 그간 1층만 임대하고 2,3층은 비워두었다가 화재발생 약 3개월전에 전층을 개장, 영업을 해오던 중 화재를 겪게 된 것이다.

## ●화재발생 원인 및 경위

지난 3월23일 오전 10시50분경 고려상가 앞에서 트럭에 실려있던 소형부탄가스통 8천여개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고려상가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날 불은 운전기사가 가스를 배달하러간 사이 고려상가1층 상인들이 차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자 조수가 차를 앞으로 빼다가 트럭에 실려있던 가스통이 떨어지면서 폭발하여 순식간에 상가에 인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발화직후 인근 상인들이 진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가스통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바람에 진화를 못하고 수분 후 긴급출동한 시내 각 소방차와 미8군소속 소방차등 90

여대가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진입로가 협소하였고 점포 내에 인화물질이 많아 진화작업이 어려웠다.

이 불은 13시50분경에 완전 진화되었으나 고려상가및 청자상가, 성우상가 등이 전소되는 엄청난 피해를 냈다.

## ● 피해상황 및 보험계약

재난이란 본래 예고없이 순식간에 닥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남대문시장 화재처럼 문제가 많이 제기된 경우도 드문 것 같다.

문명의 이기로운 생각되었던 가스의 일부가 안전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형가스통에 의하여 이처럼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보기에 문제가 없지 않은 것 같다.

고려상가는 이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다. 상가에 진열된 상품은 물론 건물도 1층과 2층의 내외부벽체 및 3층의 외부 난간벽 대부분이 심하게 열을 받아 일부는 도괴되었고 건물의 형태는 대부분 보존되어있으나 균열상태가 심하여 도괴의 위험마저 따르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콘크리트기둥 및 슬라브, 계단실등도 심한 열을 받아 철근의 팽창과 콘크리트의 균열상태가 심하고 철근이 노출되어 화재의 위력이 대단했음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고려상가는 84년 7월31일에 1년계약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에 1억9천6백98만원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많은 상품들이 산적해 있던 임대점포들은 개장한지 얼마되지 않아 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다만 2층 45개 점포중 30여 점포주만이 경험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산등을 보험에 가입하였다.

고려상가 관리전반을 책임맡고 있는 韓鎭杰씨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시장건물의 보험계약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화보험회에서 취급하는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우리상가의 입장에서 볼때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보험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직원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했다.

## ● 손해보상과 복구계획

협회는 지난 4월4일 추정손해액이 확정됨에 따라 고려상가에 8천여만원의 가도보험금을 지급한데 이어 4월29일 이재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나머지 7천4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1억5천4백12만원의 보험금지급을 끝낸 바 있다.

보험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韓鎭杰씨는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주어서 대체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상이 충분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건물의 뼈대는 살아있지만 건물전체가 심하게 손상을 입고 있어 많은 보강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협회에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서 복구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만 협회에서 지급해준 보험금으로는 건물복구비 등을 충당하기에 많이 부족될 것입니다.』

고려상가는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화재피해 외에도 복구기간 동안의 정신적 물질적인 간접피해까지 생각하면 실제 엄청난 손해를 당하였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상가복구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복구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7월초순 경에는 정상적인 상가로 문을 열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형사고를 당하고도 신속하게 복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韓鎭杰씨는 계속해서 이번 사고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소형가스통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문제인데 그저 하나 놓고볼 때에는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천개가 쌓여있다고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지요. 그때는 그냥 폭발이예요. 이걸 상품으로 본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지난뒤에 긴말 해봐야 소용없지만 복잡한 시장안으로 폭발물을 신고 다니게 하면 됩니까? 안전장치도 없이 수천개씩 한트럭 가득 신고 다니는데도 아무런 규제조치가 없었다는 점에는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폭발하지 않았으면 불도 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남대문시장 화재현장부근에 들어선 사람은 누구나 우리들이 그동안 화재에 대해 얼마나 무방비상태로 마음 편히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좁다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건물들은 협소하고 낡은 목조이며 건물 안팎으로는 주로 화학섬유제품인 의류가 지천으로 쌓여있는데다가 한낮에도 발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버너용 휘발유와 가스통들이 잔뜩 널려있는 등산용품 가게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고 게다가 7자로 쪼여진 골목 바로 안쪽에는 떡볶이, 튀김 따위를 파는 음식점들이 프로판가스며 연탄화덕을 마구 사용하고 있다. 함부로 던진 담배꽂초나 바람에 날리는 휴지한장이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장면들을 상상한다면 당국과 시장상인들은 물론 일반인 모두가 이번 남대문시장 화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